

공중화장실 담당자 교육개최

월드컵문화시민중앙협의회(이하-'문민협') 주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 담당자 총158명이 참석하여 「아름다운 화장실」 확산·정착을 위한 담당자 교육과 우수화장실 견학을 실시하였다.

글_편 집 부

- ▶일자 : 2001년 5월10일(목)~5월11일(금)
-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서초구 양재동)
- ▶견학 : 서울, 광진구청 화장실 →수원, 전망좋은 화장실 →영동고속도로, 문막(하) 휴게소 화장실

환영사

문민협 이영덕 회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2002년 월드컵은 우리의 생활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지난 88올림픽을 치르면서도 바꾸지 못했던 화장실문화 개선은 청결운동의 핵심사업이라고 소개하며, 그동안 추진과정을 설명하였다.

“앞으로 새로 짓는 화장실은 아름답고 편리하게 짓고 닫힌 화장실은 빠짐없이 열며 더럽고 불편한 화장실은 과감하게 고치는 한편 이용하는 사람들은 깨끗이 이용하는 풍토가 정착 되도록 함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비록 이틀동안의 짧은 교육기간이지만, 여기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여러분이 근무하고 계신 지역과 직장의 화장실문화를 개선하는데 쏟아주시길 당부하였다.

아름다운 화장실운동 정책방향

문민협 구기찬 운영국장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공중화장실은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알 수 있는 척도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제 및 문화수준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 문화로 개선의 필요성을 먼저 강조하였다.

이어서 공중화장실 개선방향을 크게 「시설·이용·관리」의 3개 분야로 나누며 이 3개 분야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화장실 문화가 탄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름다운 화장실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급자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하며 이용자들에게 '더럽고 불편한 화장실을 깨끗이 쓰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격조 높은 화장실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품격과 함께 화장실의 사용수준을 높여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였다.

복잡한 거리에서 화장실을 찾아 헤매다가 잠겨 있는 화장실 문 앞에서 곤란을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아름다운 화장실 운동의 두 번째 단계는 화장실 관리의 개선과 이용자의 의식 개선에 전략을 세워 닫혀있는 화장실을 열게 하고 화장실 이용 에티켓을 확산시키며 화장실 문화의 추진패턴을 시민운동과 연계하여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첨단 공중화장실의 시설과 설비

발표자인 동양공업대학 전영상 교수(본 협의회 이사)는 공중화장실의 변천사를 설명하면서 공중화장실(Public Toilet Space)은 19세기 초 처음으로 영국에서 관광산업이 시작된 이래

화장실문화 개선은 청결운동의 핵심산업으로, 비록 이틀동안의 짧은 교육기간이지만 여기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여러분이 근무하고 계신 지역과 직장의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는데 쏟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영덕 화장의 환영사 중에서-

관광 붐이 만들어낸 것으로 「인간 생활양식에 혁명을 가져다 준 발명품」 제1위가 되었고 화장지는 5위에 랭크되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중화장실과 그 비품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를 주지시켰다.

이에 공공서비스 시설인 공중화장실은 휴식 공간의 만남과 쉼터인 편안한 문화공간으로 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이 요구된다고 하며, 특히 야외에 단독으로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은 하나의 작은 건물이라기 보다는 "환경 친화적인 조형물의 형태로서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 이용하는 쾌적하고 안락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외관을 갖춘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존하는 화장실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이제는 「밝게! 트이게! 드러나게!」공중화장실이 바뀌어야 하며 내부는 청소와 관리가 쉽도록 설계 때부터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공중화장실의 설계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면서 화장실 문화에 관한 인식개혁은 단체가 교육을 하고 정부가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무조건 되는 일이 아니며 국민 개인이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실천하는 길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강의를 마쳤다.

공중화장실 이용과 관리

화장실문화시민연대 표혜령 사무국장은 그동안 시민연대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공중화장실의 이용과 관리부분을 설명하면서, 지난 88서울올림픽 때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던 것처럼 2002년 월드컵이 끝나면 모든 사람들의 정성으로 기껏 정비된 화장실 수준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하였다.

화장실문화 개선운동은 월드컵이 끝나면 버리는 행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숨쉬는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오아시스 같은 고속도로휴게소 화장실

한국도로공사 나경택 영업처장은 화장실은 특성상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 좋은 시설을 갖추었더라도 한시라도 소홀히 하면 금방 더러워지고 더 이상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은 장소로 전락해 버린다면 유지관리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였다.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은 매일 8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공중화장실로 여행객들이 화장실에 들어서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들른 듯한 쾌적함과 편안함을 느끼도록 99년 6월부터 대대적인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왔다.

고속도로휴게소는 평균 30km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현재 10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5년 내에 100개소 이상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으로 변기 수를 산정하고 있다.

아름답고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 하게 수반되는 것이 유지관리 비용으로 적정한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그 화장실은 오래가지 않아 훼손되어 삼류화장실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환영사를 하고 있는 이영덕 회장

■화장실 규모 및 변기 개수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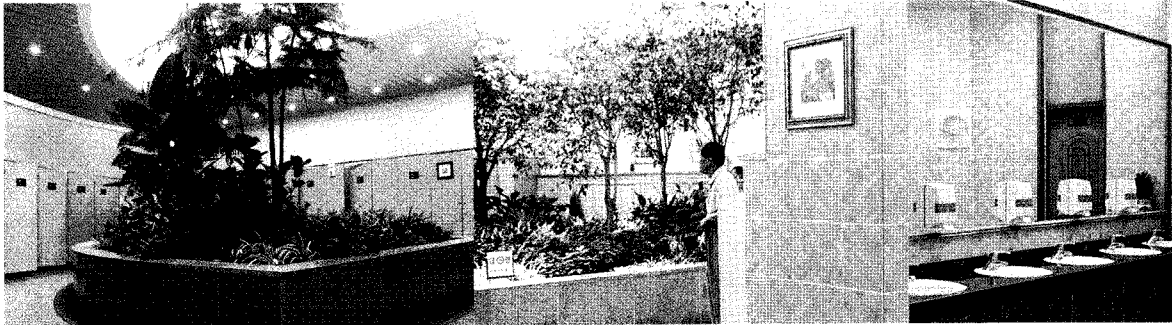
구분	승용차			비고	
	승용차	버스	대형차		
1.차종구성률 (%)	정규휴게소	65	5	30	주차계획 대수적용
	간이휴게소	73	2	25	
2.주차회전율 (회/HR)	정규휴게소	2.4	3	2	
	간이휴게소	2.7(22분)	3.5(17분)	3(20분)	
3.평균승차인원(인)		3	30	1.8	
4.화장실 이용율	휴게소 이용자의 80%				
5.화장실 이용 성별비율	남:여 = 1.3:1 (56% : 44%)				
6.변기회전율(회/시간)	남자소변기 : 60회 (1분), 남자대변기 : 12회 (5분) 여자변기 : 30회 (2분)				
7.남자 소·대변기 비율	· 소변기 산출시 = 10.6:1 (92% 적용) · 대변기 산출시 = 7.8:1 (12% 적용) - Peak 적용				대변기는 소변기의 2/3수준
8.남자화장실 면적(A)	$A = [(B \times 0.7m^2) + (C \times 1.6m^2)] \times 3.7 \sim 4.0$ (통로 및 부대시설) - B : 소변기 수 - C : 대변기 수				4.2m ² /개
9.여자화장실 면적(A')	$A' = [C' \times 1.6m^2] \times 3.7 \sim 4.0$ (통로 및 부대시설)				6.0m ² /개
10.대변기종류 비율	남자 → 화변기:양변기 = 50%:50% 여자 → 화변기:양변기 = 70%:30%				

▶장애자 화장실 및 유아용 화장실은 별도 산정

▶주차면수(편수) = 편측 설계 교통량 × 서비스계수 × 이용율 × (혼잡율/회전율)

■화장실 관련 편의시설 설치기준

구분	정규휴게소		간이휴게소		비고	
	기존	개선	기존	개선		
장애인화장실	2	2	1	2	남·여 분리	
유아용(남) 소변기	남자화장실	2	4	1	2	
	여자화장실	1	2	1	1	
유아용(여)양변기(여자화장실)	2	2	1	1		
베이비부스(여자화장실)	1	2	1	1	기저귀교환대	
유아용세면기	남자화장실	1	2	1	2	
	여자화장실	1	2	1	1	
베이비시터	2	2	1	1	야기보호대	
파우더 룸(여자화장실)	-	1	-	1		



▲자연친화적 환경을 조성한 고속도로 문막(하)휴게소 화장실(제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수상)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한 이후 유지비용이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향후 비용은 줄이되 시설은 종전처럼 깨끗이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해야할 과제이다.

그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운영혁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언을 드린다면

- 첫 째 우리나라 국민들도 점차 체형이 커져가고 있는바, 향후 화장실 설계시 대변실이나 소변기의 적정규모를 좀더 크게 설계 해야 하고
- 둘 째 화장실 여건상 담당자를 상시 배치하지 못하는 공중화장실에는 부득이한 경우 담당자가 아닌 이용자가 청소할 수 있도록 청소합 및 청소도구를 비치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셋 째 화장실에 대한 안내문이나 영문표기가 최소한 각 지역별로는 통일이 되어야 하고
- 넷 째 외국의 문화적 특징을 고려하여 남자 화장실은 남자 청소원을 여자화장실은 여자 청소원을 배치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청소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다음사람을 배려하는 계도활동과 문제발생시 관리자에게 적극 알리는 적극적인 시민의식이 발휘되도록 하는 제도 또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수화장실 견학

버스 4대로 2000년도에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된 광진구청 화장실, 전망좋은 화장실, 문막(하)휴게소 화장실을 직접 견학하여 해당 화장실 개선 실무자에게 화장실 개선의 중점 내용을 듣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되게된 배경을 설명 들으며 질의·응답이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사진촬영과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지하 PIT층까지 내려가 시설물을 살펴보는 현장경험을 병행함으로써 교육생들이 복귀하여 해당지역 및 직장에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첨단 공중화장실의 시설과 설비를 강의하는 전영삼 교수